

CPI 서프라이즈에 미 증시 강세(f.러셀, 부동산)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CPI 서프라이즈

•미 증시는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상 작업이 끝났으며, 내년부터는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 이는 미 국채수익률 곡선 전반의 하방 압력을 높여. 특히 장기물보다는 단기물 낙폭이 더 큰 강세 스티프닝 나타나. 달러인덱스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9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 한편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자, 소형주 러셀 2000과 부동산 섹터는 5% 넘게 상승. (다우 +1.43%, 나스닥 +2.37%, S&P500 +1.91%, 러셀2000 +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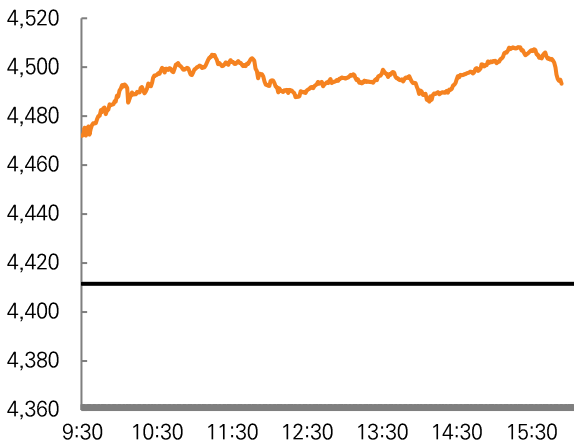
특징 종목: 테크 ETF 신고가

-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업종 모두 상승한 가운데, 국채수익률 하락 영향으로 부동산(+5.32%), 유틸리티(+3.94%) 등 금리에 민감한 업종 강세. 또한 S&P 테크 ETF(XLK, +2.00%)는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
- (상승) 엔비디아(+2.13%)와 마이크로소프트(+0.98%)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 특히 엔비디아는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016년 이후 가장 상승 랠리 기록. 테슬라(+6.12%)는 중국 내에서의 차량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 아마존(+2.25%)이 인스타그램 및 스냅챗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제휴한다는 소식에 메타(+2.16%), 스냅(+7.52%) 등 강세.
- (하락) 피스커(-18.73%)는 3분기 실적 부진과 EV 수요 둔화에 따른 연간 생산량을 이전 2만대에서 13,000~17,000대로 하향하자 급락. 온홀딩스(-3.43%)는 4분기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 한 자릿 수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혀 소폭 하락. 이 날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을 상회.

한국 증시 전망: 외풍(外風)

•MSCI 한국 지수 ETF는 3.69%, MSCI 신흥 지수 ETF는 2.66%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3.32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27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53% 상승. KOSPI는 1.0%~1.5% 이상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금일 국내증시는 위험자산 선호 속 달러/원 환율, 국채수익률 하락 및 외국인 수급 유입 등 기대로 상승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특히 시가총액 비중이 큰 반도체와 2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전일에 이어 강한 수급 유입이 될 경우, 장중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다만,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의 10월 소매판매 ·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지표에 주목할 필요. 전월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기대에 부합 또는 상회 여부가 중요.

S&P500 일중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33.25	+1.23	상해종합	3,056.07	+0.31
KOSDAQ	794.19	+2.55	홍콩항셍	17,396.86	-0.17
DOW	34,827.70	+1.43	인도센섹스	64,933.87	-0.50
NASDAQ	14,094.38	+2.37	유로스톡스 50	4,291.72	+1.41
S&P 500	4,495.70	+1.91	영국	7,440.47	+0.20
캐나다	20,024.53	+1.60	독일	15,614.43	+1.76
일본	32,695.93	+0.34	프랑스	7,185.68	+1.39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미 증시는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상 작업이 끝났으며, 내년부터는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 이는 미 국채수익률 곡선 전반의 하방 압력을 높여. 특히 장기물보다는 단기물 낙폭이 더 큰 강세 스티프닝 나타나. 달러인덱스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9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 한편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기대되자, 소형주 러셀 2000과 부동산 섹터는 5% 넘게 상승.

10월 CPI, 골디락스 기대감 높여

미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약 1.8%) 이상의 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0월 헤드라인 CPI는 전년대비 3.2%, 전월대비 보합세(+0.0%)를 보이며 시장 예상보다 개선된 데이터를 보여줘. 핵심 CPI 역시 전년대비 4.0%, 전월대비 0.2% 상승해 시장 예상보다 나은 결과 보여. 이는 강한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골디락스(goldilocks)’ 모멘텀을 강화. 동시에 시장은 연준의 긴축 종료와 함께 내년 중반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확대. S&P 500 지수는 지난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4차례의 겹 상승(11/1, 2, 3일 그리고 14일)을 포함해 거의 10%나 상승.

CME의 Fedatch에 따르면, 12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월요일 15%에서 현재 0%로 낮춰. 또한 내년 3월까지 금리를 현 수준(5.25~5.50%)을 동결한 이후, 5월부터 연내 총 4차례의 금리인하를 예상. 내년 연말 예상 기준금리는 4.33%로 지난 9월 점도표에서 밝힌 5.1%보다 크게 낮아.

항목별로는(아래 ‘표1’ 참고) 식품 물가가 끈적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 물가가 5개월 만에 하락 반전. 또한 중고차 및 트럭은 5개월 연속 둔화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신차 가격은 3개월 만에 하락 반전. 또한 핵심 CPI 증가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보다 크게 둔화. 한편,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전월대비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

한편, 10월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는 지난 달 90.8에서 소폭 하락한 90.7로 하락. 대부분의 항목들이 전월과 비슷한 가운데 실질 실적 변동 수치는 -32%를 기록하며 22년 8월 이후 최저 기록

표 1.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항목별 변화

구분	2023년(계절조정, 전월대비)								전년대비 (비계절조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체항목	0.1	0.4	0.1	0.2	0.2	0.6	0.4	0.0	3.2
식품	0.0	0.0	0.2	0.1	0.2	0.2	0.2	0.3	3.3
가정용식품	-0.3	-0.2	0.1	0.0	0.3	0.2	0.1	0.3	2.1
외식용식품	0.6	0.4	0.5	0.4	0.2	0.3	0.4	0.4	5.4
에너지	-3.5	0.6	-3.6	0.6	0.1	5.6	1.5	-2.5	-4.5
에너지상품	-4.6	2.7	-5.6	0.8	0.3	10.5	2.3	-4.9	-6.2
기술린	-4.6	3.0	-5.6	1.0	0.2	10.6	2.1	-5.0	-5.3
연료유	-4.0	-4.5	-7.7	-0.4	3.0	9.1	8.5	-0.8	-21.4
에너지서비스	-2.3	-1.7	-1.4	0.4	-0.1	0.2	0.6	0.5	-2.3
전기	-0.7	-0.7	-1.0	0.9	-0.7	0.2	1.3	0.3	2.4
유틸리티 가스서비스	-7.1	-4.9	-2.6	-1.7	2.0	0.1	-1.9	1.2	-15.8
전체항목(식품 및 에너지 제외)	0.4	0.4	0.4	0.2	0.2	0.3	0.3	0.2	4.0
핵심상품	0.2	0.6	0.6	-0.1	-0.3	-0.1	-0.4	-0.1	0.1
신차	0.4	-0.2	-0.1	0.0	-0.1	0.3	0.3	-0.1	1.9
중고차 및 트럭	-0.9	4.4	4.4	-0.5	-1.3	-1.2	-2.5	-0.8	-7.1
의류	0.3	0.3	0.3	0.3	0.0	0.2	-0.8	0.1	2.6
메디컬케어 상품	0.6	0.5	0.6	0.2	0.5	0.6	-0.3	0.4	4.7
핵심서비스	0.4	0.4	0.4	0.3	0.4	0.4	0.6	0.3	5.5
주거지	0.6	0.4	0.6	0.4	0.4	0.3	0.6	0.3	6.7
운송서비스	1.4	-0.2	0.8	0.1	0.3	2.0	0.7	0.8	9.2
메디컬케어 서비스	-0.5	-0.1	-0.1	0.0	-0.4	0.1	0.3	0.3	-2.0

자료: BLS,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역사적 신고가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업종 모두 상승한 가운데, 국채수익률 하락 영향으로 부동산(+5.32%), 유틸리티(+3.94%) 등 금리에 민감한 업종 강세. 또한 S&P 테크 ETF(XLK, +2.00%)는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

(상승) 엔비디아(+2.13%)와 마이크로소프트(+0.98%)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 특히 엔비디아는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016년 이후 최장 상승 랠리 기록. 테슬라(+6.12%)는 중국 내에서의 차량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 아마존(+2.25%)이 인스타그램 및 스냅챗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제휴한다는 소식에 메타(+2.16%), 스냅(+7.52%) 등 강세. 엔페이즈(+16.35%), 퍼스트솔라(+11.43%), 솔라엠티지(+10.79%) 등 태양광주 강세에 힘입어 Invesco 태양광 ETF(TAN)는 10% 넘게 상승. S&P 은행 ETF(KBE)와 지역은행 ETF(KRE)는 각각 +6.25%, +7.36%씩 상승. 이 날 실적을 발표한 홈디포(+5.40%)는 3분기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에 상승. 다만 연간 가이던스는 하향.

(하락) 피스커(-18.73%)는 3분기 실적 부진과 EV 수요 둔화에 따른 연간 생산량을 이전 2만대에서 13,000~17,000대로 하향하자 급락. 온홀딩스(-3.43%)는 4분기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 한 자릿 수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혀 소폭 하락. 이 날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을 상회.

상품 및
FX시장 동향

미 국채 ‘강세 스티프닝’

(금리) 미국의 10월 CPI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자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되며 2년물 국채수익률은 20bp 이상 하락하며 지난 3월 은행위기 이후 가장 큰 일일 낙폭을 기록. 또한 국채 수익률 전반의 하락 압력이 커진 가운데, 장기물보다는 단기물 낙폭이 더 큰 ‘강세 스티프닝(Bull Steepening)’ 나타나며 장단기금리차 역전폭은 전일대비 1.5bp 축소.

(외환) 미국의 추가 긴축 우려 완화는 달러 약세로 나타나며, 달러인덱스는 전일대비 1.49% 하락한 104선에 근접. 이는 지난 9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상대적으로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로컬 통화 들의 강세 나타나.

(유가)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원유 수요 전망을 지난달 일일 230만 배럴에서 240만 배럴로 늘리자 4거래일 연속 상승. 내년 세계 석유 수요는 일일 1억 290만 배럴 예상.

한국
주식시장 전망

훈훈한 외풍(外風)

MSCI 한국 지수 ETF는 3.69%, MSCI 신흥 지수 ETF는 2.66%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03.32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27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53% 상승. KOSPI는 1.0%~1.5% 이상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금일 국내증시는 위험자산 선호 속 달러/원 환율, 국채수익률 하락 및 외국인 수급 유입 등 기대로 상승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특히 시가총액 비중이 큰 반도체와 2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전일 이어 강한 수급 유입이 될 경우, 장중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다만,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의 10월 소매판매·산업생산 등 실물경제지표에 주목할 필요. 전월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기대에 부합 또는 상회 여부가 중요.



반도체 · 2차전지 ETF 강세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66	대형 가치주 ETF (IVE)	+2.30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3.48
소매업체 ETF (XLY)	+3.37	소형 가치주 ETF (IWN)	+5.65
온라인소매 ETF (EBIZ)	+3.15	대형 성장주 ETF (VUG)	+2.00
미국 인프라 ETF (PAVE)	+3.28	중형 성장주 ETF (IWP)	+3.16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5.20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4.50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1.77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4.71	미국 국채 ETF (IEF)	+1.50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3.68	하이일드 ETF (JNK)	+1.04
바이오섹터 ETF (IBB)	+2.16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3.74	물가연동채 ETF (TIP)	+0.82
반도체 ETF (SMH)	+3.05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1.57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부동산	225.03	+5.32	+4.61	+4.52
유틸리티	313.79	+3.94	+1.01	+4.25
경기소비재	1,326.91	+3.32	+3.16	+5.97
소재	500.27	+2.91	+3.34	+2.36
산업재	884.71	+2.04	+3.53	+2.75
IT	3,237.46	+1.92	+4.24	+8.07
금융	572.00	+1.77	+2.41	+3.62
커뮤니케이션	234.73	+1.42	+2.72	+2.73
필수소비재	737.43	+0.90	+1.09	+4.48
헬스케어	1,488.62	+0.70	-0.41	-1.86
에너지	645.88	+0.54	+0.81	-5.91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8.26	0.00	+1.15	Dollar Index	104.067	-1.48	-1.40
브렌트유	82.47	-0.05	+1.07	EUR/USD	1.0877	+1.67	+1.65
천연가스	3.11	-3.22	-1.46	USD/JPY	150.31	-0.93	-0.04
금	1,966.50	+0.86	-0.33	GBP/USD	1.2498	+1.78	+1.61
은	23.13	+3.61	+2.55	USD/CHF	0.8890	-1.40	-1.23
알루미늄	2,231.00	+0.34	-1.50	AUD/USD	0.6505	+2.01	+1.07
전기동	8,235.00	+0.83	+0.59	USD/CAD	1.3692	-0.82	-0.54
아연	2,600.50	+1.86	+1.27	USD/RUB	90.6067	-1.10	-1.74
옥수수	494.25	+0.36	+2.28	USD/BRL	4.8649	-0.92	-0.29
밀	597.75	-0.71	+0.34	USD/CNH	7.2508	-0.58	-0.42
대두	1,389.75	+0.63	+2.15	USD/KRW	1,328.90	+0.29	+1.61
커피	171.40	-1.04	+1.12	USD/KRW NDF1M	1,303.32	-1.17	+0.0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451	-18.87	-11.53	스페인	3.637	-13.00	-8.10
한국	3.980	-2.70	-7.60	포르투갈	3.293	-13.80	-9.90
일본	0.862	-0.90	-2.20	그리스	3.904	-7.40	-5.60
독일	2.600	-11.30	-5.80	이탈리아	4.410	-15.30	-14.0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